



즉시 배포용: 10/2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가족 간병인 지원을 위한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ARE(Caregiver Advise, Record and Enable) 법안의 서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정식으로 간병인을 지명하여 퇴원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병원 근무자들에게는 가족 간병인에게 봉대 가는 법과 약물을 처방하는 방법과 같이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방법에 대한 지시 또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개, 회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환자가 퇴원하면서 시작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뉴욕주민들에게 그들이 간병을 맡기는 데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게 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 힘써주신 Hannon 상원의원과 Rosenthal 주의회의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명된 이 법안(S.676B/A.1323B)은 병원들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카드에 간병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병원들은 환자가 퇴원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간병인에게 먼저 알리고 모든 회복기 치료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환자의 퇴원 계획서에 표시될 것입니다.

Kemp Hann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환자들은 대개 친족이나 친구들의 회복기 치료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환자에게 걷기, 식사, 드레싱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과 상처 치료 또는 의료 장비 작동과 같은 기타 보잡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간병인들을 환자 퇴원 전에 퇴원 후 회복기 돌봄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지침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지침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Linda Rosenthal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ARE 법이 법으로 확정됨에 따라 뉴욕에서 활동하는 수천 명의 간병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화자들을 집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법안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셔서 감사 드리며, 가족 간병인을 열심히 지지해주시고 이런 활동을 미 전역에서 실천해주신 AARP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의 AARP 주 담당장인 **Beth Fink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가정

간병인에게 아주 기쁜 날입니다. AARP는 가족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든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CARE 법안 수많은 가족 간병인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